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4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6)	봉헌 (217)	성체 (506)	파견 (19)
---------	---------	----------	----------	---------

제1독서 | 아모 6,1ㄱ-4-7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ㄷ-10ㄱ(◎ 1ㄴ)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1티모 6,1ㄱ-16

복음환호송 | 2코린 8,9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하셨네. ◎

복음 | 루카 16,19-31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29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10/6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10/13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10/2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8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이 요한/ 이 마틸다
10/5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유 요한/유 마리아
10/12	손 아놀드/ 손 쟈마	11/1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0/1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23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0/26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11/30	김 요아킴/ 고 안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초콜릿 세 알과 140원

-김해선 비비안나 | 시인-

감기를 앓고 나서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책 한 권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감기 기운에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걸을 만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주소를 쓰다가 잘 못 쓰는 바람에 다시 새 봉투에 주소를 쓰고 창구에 책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빠른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며 카드로 결제 하려는데 ‘봉투값 140원’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카드밖에 없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분을 걸어서 왔는데 다시 집에 갔다 올 생각을 하니 난감했습니다. 동전 십 원이 부족하면 급할 때 공중전화도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를 어찌죠. 제가 집에 가서 140원을 가져올게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 뒤에서 “여기요, 여기 있어요”라면서 200원을 내미는 손이 있었습니다. 소포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내미는 손에 들어있는 200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면서 머뭇거리자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면서도 남은 60원을 고마운 그분께 드리기엔 왠지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순간 가방에 들어 있던 초콜릿이 생각나서 은박지에 쌓인 초콜릿 세 알과 함께 남은 돈 60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분께, “받아주세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며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습니다. 희부영게 먼지 낀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9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30 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상정상 오늘 저녁에 갖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10 월 묵주기도성월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미사 시작 30 분전에 묵주기도 5 단을 다함께 바칩니다.

창문을 달고 달리는 마을버스도, 매연을 내뿜고 가는 용달차도 경쾌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던 감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40원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그저 난감한 상황의 누군가를 향한 사심 없는 배려가 새삼 감사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200원을 내민 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버스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준다면 물건을 들고 내리는 사람에게 먼저 내리라고 하는 등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합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지만 200원을 내밀던 낯선 손길에서 아주 작은일, 눈에 띄지 않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복음묵상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루카 16-31)